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5 권 48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	-------	-------	-------	-------

오늘의 묵상

어제는 교회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치는 날이었고 **오늘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 시기의 첫날**인데, 어제와 오늘 복음이 같습니다. 그것은 대림 시기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을 기다리는 때이지만, 마지막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방탕, 만취, 일상의 근심은 우리를 좁은 벽 안에 가두어 버려, 지금 이 순간 외에는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만취한 사람은 술이 깨었을 때의 세상이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일상의 근심에 얽매인 사람도 그 일 이외의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일에 몰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누군가 인생은 기다림 속에서 저물어 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기쁨과 희망 속에서 준비하는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못지않게 우리 개개인의 죽음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29	이 마틸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2/6	유 요한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2/13	이 마틸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2/20	유 요한	이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2/27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성인복사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1/22	\$ 265.00	-	\$ 350.00

11 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어제는 교회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치는 날이었고 오늘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 시기의 첫날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 가톨릭 정보 인터넷 주소: <http://info.catholic.or.kr/>

한국 가톨릭 정보 인터넷 정보에서 다양한 정보(매일미사, 성경, 기도서, 교리 등)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12/3(목) 오후 6시 30분

12 월 성체조배는 첫째 목요일인, 12 월 3 일 저녁 6 시 미사 직후에 있습니다.

공동체 평협 임원회의: 12/8(화) 오후 8 시

12 월 한인 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둘째 화요일인, 12 월 8 일 화요일 오후 8 시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대림일일 피정: 12/20 (주일) 오전 8 시-오후 5 시

강사: 가톨릭신문사 미주지사 김문상 디오니시오 신부님, 산클레멘테 본당 전홍식 요아킴 신부님.

문의: 김 헬레나 (661-350-0640), 박 니콜라스 (661-703-5957).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림피정에 꼭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총으로 충분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가톨릭 정보 인터넷 주소: <http://info.catholic.or.kr/>

한국 가톨릭 정보 인터넷 정보에서 다양한 정보(매일미사, 성경, 기도서, 교리 등)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LA 한국 총영사관 '테러관련' 당부 말씀

프랑스 테러사건이후, 추가 테러가 있을거라는 우려속에, 마국 내에서 발생하리라는 보도속에,미국 당국도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한층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포 여러분께서는, 관련 동향과 뉴스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시고, 혹시 테러목표가 될수도 있는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시에 특히 신변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총영사관.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전화: (213) 385-9300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만찬'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신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주교회의'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 교회 전체의 공동선 증진을 위해서 사목임무를 공동으로 조정하여 수행하도록 사도좌가 법인으로 설립한 상설기관으로 한국 주교들의 회합이다 (한국 주교회의 정관 제 1 조; 교회법 제 447 조, 제 449 조 참조).

현재 한국 주교회의의 회원은 추기경 1 명, 대주교 2 명, 주교 23 명, 아쌍스 1 명, 준회원(은퇴주교) 12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해 시대인 1857 년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제 1 차 주교회의가 열렸으며, 1931 년 9 월 13-25 일에 열린 제 2 차 회의 이후에는 거의 해마다 주교회의가 개최되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국 주교회의는 1966 년 11 월 30 일-12 월 2 일 총회에서 주교회의 규약을 확정하고, 전국 차원의 문서 전교 등을 위하여 중앙출판사의 기능을 하도록 설립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처음에는 한국천주교중앙위원회) 사무처에 주교회의 사무국의 임무를 맡게 하였다.

이 주교회의 규약이 1967 년 12 월 4 일에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임시 의장단이 정식으로 취임하는 등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들의 교회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이 인정하는 주교회의의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5 년 기한부로 사도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주교회의 규약은 1983 년 새 교회법전이 공포된 다음 새로운 정관으로 개정되고, 1985 년 1 월 31 일 사도좌의 정식 승인을 받았으며, 교황 자의교서 「주님의

사도들」(Apostolos Suos)에 따른 개정 정관이 2002 년 2 월 14 일 사도좌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정관은 주교회의의 2010 년 춘계 정기총회 때 개정하여, 2011 년 4 월 8 일 승인을 받았다.

주교회의의 임무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땅의 복음화와 공통 유익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국가와 시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도직 형태와 방법을 참작하여,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 협의하며 교령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한다. 또한 필요한 때마다 사도좌에 문제의 공동 해결을 청원하고, 사도좌의 교령이나 결정을 시행하며, 그 밖에 보편 교회와 한국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할 것들이나 사도좌에서 요청한 것들을 다룬다.

주교회의의 목적

주교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정관 제 2 조, 교회법 제 447 조 참조).

- 1) 공통 선익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하여, 특히 국가와 시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도직 형태와 방법을 참작하여, 지혜롭고 신중하게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현명과 경험에 비추어 연구하는 일
- 2) 위에 언급된 것에 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며 교령을 제정하는 일
- 3) 필요한 때마다 사도좌에 공동 해결을 청원하는 일
- 4) 결정 사항을 이해하고 사도좌에서 받은 교령과 해결책을 실시하는 일
- 5) 그 밖에 보편 교회와 한국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해야 할 것들이나 사도좌에서 요청한 것들을 다루는 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웹페이지 www.cbck.or.kr/>